

발간등록번호

대전중, 라00022

#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

2018.  
2.



#### 인포그래픽

세종시 벤처기업 변화

#### 주요 경제 ISSUE

2018년 이머징 이슈

####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상상장터 이용 현황  
세종시 상상매장 활용 청년창업 유도  
세종시 스마트시티 조성

#### Economic Trends

고령인구 대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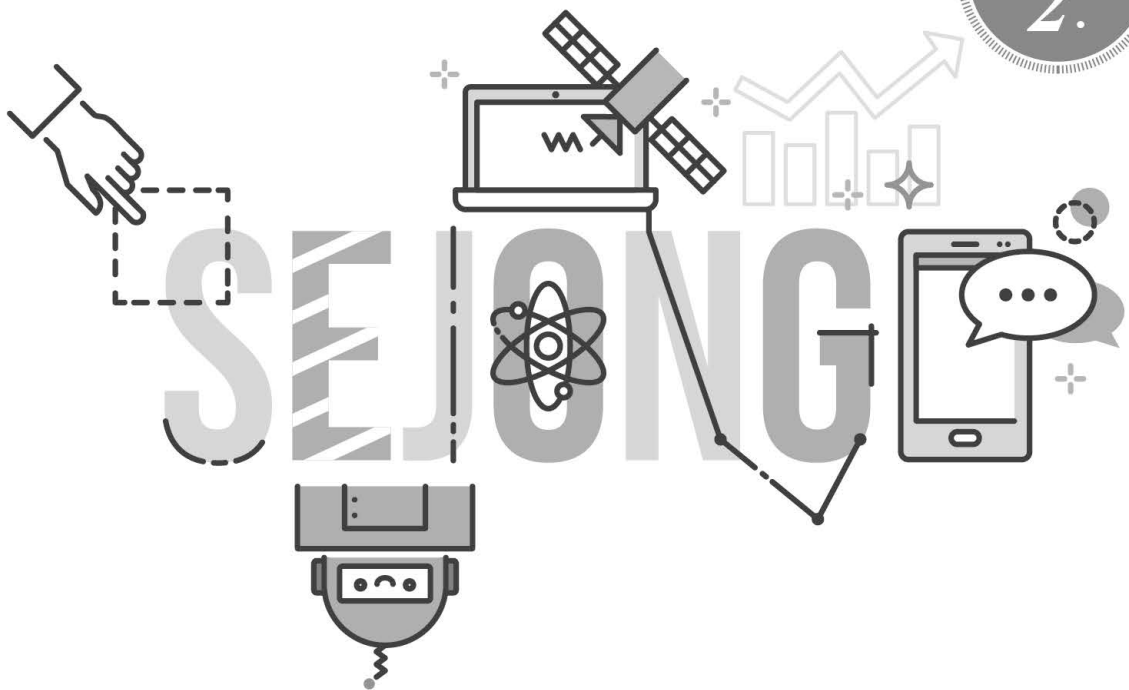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대전중, 라00022

#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

2018.  
2.





# CONTENTS

총 합	4
요 약	5
인포그래픽스	6

## I 세종시 경제동향

<b>1. 고용</b>	10
1) 경제활동인구	10
2) 취업자	12
3) 고용률	15
4) 직종별 취업자	16
5) 실업자 및 실업률	17
<b>2. 생산</b>	18
1) 광공업 생산지수	18
2) 소상공인 경기지수	20
3) 신설법인	21
4) 공장 등록 현황	22
<b>3. 물 가</b>	23
1) 생활물가지수	23
2) 농산물 소비자가격	24
<b>4. 부동산</b>	25
1) 부동산 거래량	25
2) 부동산 가격지수	27
3) 주택 건설 실적	29
4) 건설 수주 현황	30
5)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1
<b>5. 수 · 출입</b>	32
1) 무역 수지	32
2) 수출	34
3) 수입	36
<b>6. 금융</b>	38
1) 수신	38
2) 여신	39
3) 어음부도율	40
<b>7. 지역특성</b>	41
1) 인구 순이동	41
2) 자동차 등록대수	43
3) 연료소비	44
4) 전력사용	45

## II 경제 ISSUE

주요 경제 ISSUE	48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52
부 록	57



세종시 경제동향










# 종합

- » 세종시 2018년 1월 고용률은 2017년 1월 보다 증가하였으나 2017년 11월 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실업률로 볼 때 세종시 고용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생산측면에서는 광공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전년 동월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지수는 10월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소상공인 체감지수와 전망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법인 수와 공장등록 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소비자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18년 1월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및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전월세 거래량도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주택매매 가격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17년 12월 무역수지는 1,292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수출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필름류, 전동기, 기타플라스틱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인쇄회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하였는데 곡류와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 » 2017년 11월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신의 증가폭이 여신 증가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17년 12월 인구 순이동은 3,059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유류소비는 전년 동월 보다는 감소하였고 전월 보다는 증가하였다. 가스소비는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의 전력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경제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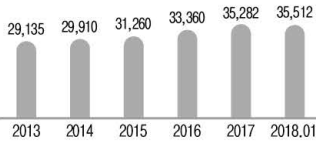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1월 경제활동 인구는 137천명으로 전년 동월(120천명) 대비 14.2% 증가, 전월(138천명) 대비 0.7% 감소</li> <li>• 1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89천명으로, 전년 동월(79천명)대비 10천명 증가, 전월(85천명)대비 4.7% 증가</li> <li>• 취업자는 134천명으로 전년 동월(117천명)대비 14.5% 증가, 전월대비 포함</li> <li>• 1월 고용률은 59.5%이며, 전월대비 0.9%p 감소</li> <li>• 1월 실업자는 3천명으로 전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25% 감소</li> <li>• 1월 실업률은 2.4%로 전월대비 0.6%p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li> </ul>
 <p>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1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13.0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li> <li>•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 재고지수는 3.0% 증가</li> <li>• 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6.3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 전망경기지수는 77.5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li> <li>• 12월 신설법인 수는 57개로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 전월 대비 포함</li> <li>• 12월 공장등록 현황은 793개소로 전월 대비 1개 기업 감소</li> </ul>
 <p>물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1월 8개 품목 물가지수 평균은 115.2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li> <li>• 채소(23.2%), 과일(22.2%), 곡물(20.2%), 육란(0.2%) 순으로 상승</li> <li>• 가공식품(-6.9%), 일용품(-6.1%), 수산물(-3.7%), 음료주류(-0.6%) 순으로 하락</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1월 주택 매매는 884건으로 전월 대비 220.3% 상승, 아파트 매매는 883건으로 전월 대비 259.1% 증가, 전월세는 1,35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li> <li>•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1% 상승</li> <li>• 1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0.5로 전월 대비 포함</li> <li>• 12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92.3로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li> </ul>
 <p>수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12월 무역수지는 1,292만 달러 흑자로 나타남.</li> <li>• 12월 수출액은 9,192만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 품목별로는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잡제품의 수출 증가</li> <li>• 수입액은 7,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 품목별로는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의 수입이 증가</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의 11월 전체 예금 잔액은 7조 2,3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li> <li>• 가계대출잔액은 5조 2,763억 원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li> <li>• 12월 어음교환액은 993억 원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 부도율은 0.00로 전월 대비 포함</li> </ul>
 <p>지역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12월 총 전입은 7,115명이며 총 전출은 4,056명으로 순이동 3,059명, 외부지역에서는 대전으로부터 가장 많은 2,164명 전입</li> <li>• 1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131,35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li> <li>• 12월 전력사용량은 264,776MWh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교육용 전력이 전년 동월 대비 22.8%로 가장 높게 증가</li> </ul>

INFOGRAPHICS



# 세종시 벤처기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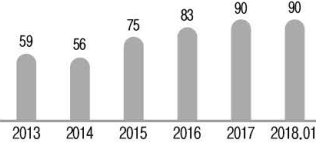
## 전국 벤처기업 수



자료 : 벤처인, www.venturein.go.kr

전국의 벤처기업 수는 2013년 29,135개에서 2018년 1월 35,512개로 5년 사이 6,377개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21.9%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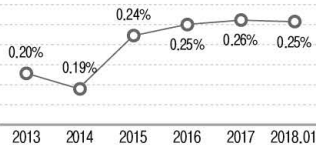
## 세종시 벤처기업 수



자료 : 벤처인, www.venturei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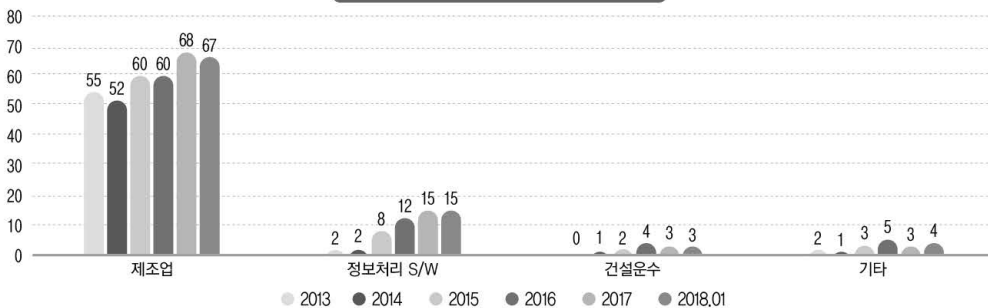
세종시 벤처기업 수는 2013년 59개에서 2018년 1월 90개로 5년 사이 31개가 생겼으며 증가율은 52.5%를 나타내고 있다.

## 전국 대비 비중



세종시 벤처기업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20%에서 2018년 1월 0.25%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벤처기업 수



자료 : 벤처인, www.venturein.go.kr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55개에서 2018년 1월에 67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처리 S/W 분야로 2013년 2개에서 2018년 1월에 15개로 조사되었다.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 세종 경제

[www.dsi.re.kr](http://www.dsi.re.kr)



# I . 세종시 경제동향

1. 고용
2. 생산
3. 물가
4. 부동산
5. 수·출입
6. 금융
7. 지역특성

## PART. 1

## 고 용



## 1 경제활동인구

- » 2018년 1월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226천명으로, 전년 동월(119천명)대비 7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223천명)대비 3천명 증가함.
- » 2018년 1월 경제활동인구는 137천명으로, 전년 동월(120천명)대비 17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138천명)대비 1천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8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증가(12.2%)하였으며, 여자는 전년 동월 대비 7천명(14.9%) 증가
- » 2018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89천명으로, 전년 동월(79천명)대비 10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85천명)대비 4천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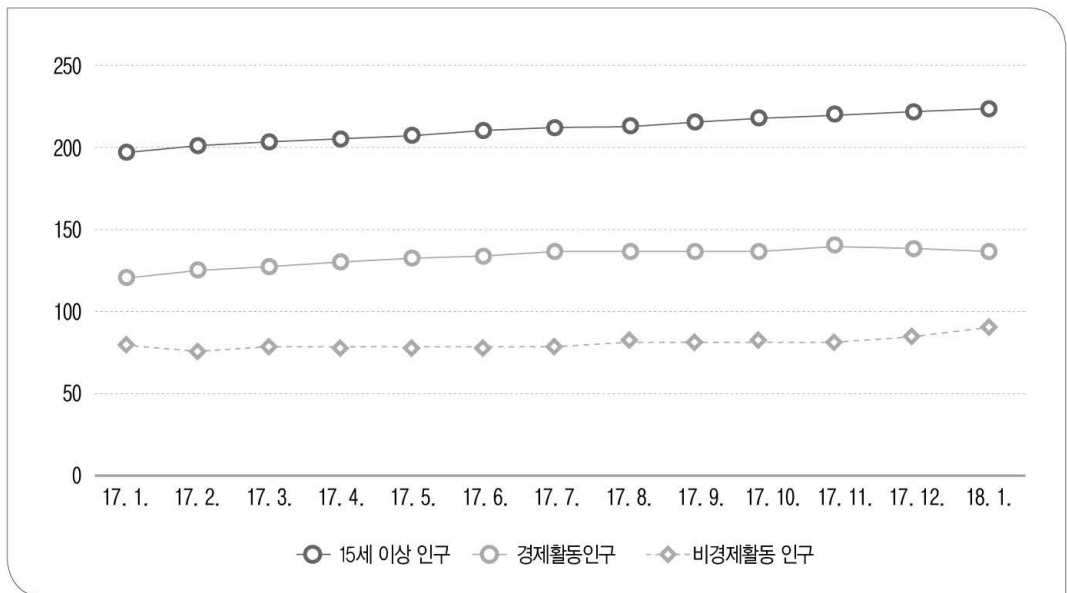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명 증가(15.4%)하였으며, 여자는 전년 동월 대비 6천명(11.3%) 증가

[ 노동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

단위 : 천명, %, p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15세 이상 인구	199	219	221	223	226	13.6	1.3
남성	99	109	110	111	112	13.1	0.9
여성	100	110	111	112	113	13.0	0.9
경제활동인구	120	137	139	138	137	14.2	-0.7
남성	74	82	83	83	83	12.2	0.0
여성	47	55	56	55	54	14.9	-1.8
비경제활동인구	79	82	82	85	89	12.7	4.7
남성	26	27	27	28	30	15.4	7.1
여성	53	55	55	57	59	11.3	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세종시 노동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

## 2 취업자

» 2018년 1월 취업자는 134천명

- 전년 동월(117천명)대비 14.5% 증가, 전월대비 포함

» 성별 취업자

- 남성은 81천명, 여성은 53천명으로 전년 동월(남성 72천명, 여성 45천명)대비 각각 12.5%, 17.8% 증가함.
- 전월대비는 남성, 여성 모두 포함

» 산업별 취업자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명(40%)증가, 농림어업은 6천명으로 1천명(20%)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0천명(17.9%)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15천명(16.3%)증가, 건설업은 1천명(12.5%)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천명(5.6%)증가함
- 농림어업은 전월대비 2천명(-25%)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천명(-1.5%)감소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월대비 2천명(11.8%)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천명(7.7%)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1천명(0.9%)증가함

» 직업별 취업자

- 관리자·전문가는 4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26.5%)증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천명(25%)증가, 사무종사자는 5천명(17.2%)증가,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3천명(10.3%)증가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임금근로자는 10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천명(11.5%) 증가함
- 비임금근로자는 2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28.6%) 증가함

[ 성별/산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체	117	135	134	134	134	14.5	0.0	
성 별	남 성	72	80	81	81	12.5	0.0	
	여 성	45	54	53	53	17.8	0.0	
산 업 별	농림어업	5	8	8	8	6	20.0	-25.0
	광 공 업	20	20	20	20	20	0.0	0.0
	제 조 업	20	20	20	20	20	0.0	0.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92	106	106	106	107	16.3	0.9
	건설업	8	8	9	9	9	12.5	0.0
	도소매·음식숙박업	18	17	18	17	19	5.6	1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6	68	66	67	66	17.9	-1.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	13	13	13	14	40.0	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체	117	135	134	134	134	14.5	0.0	
산 업 별	관리자·전문가	34	40	41	43	43	26.5	0.0
	사무종사자	29	35	33	33	34	17.2	3.0
	서비스·판매종사자	21	20	21	20	21	0.0	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8	7	7	5	25.0	-28.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29	32	32	32	32	10.3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체	117	135	134	134	134	14.5	0.0
임금근로자	96	108	108	107	107	11.5	0.0
상용	78	84	84	84	86	10.3	2.4
임시	14	20	20	20	18	28.6	-10.0
일용	4	4	4	4	3	-25.0	-25.0
비임금근로자	21	26	26	27	27	28.6	0.0
자영업주	17	21	22	23	23	35.3	0.0
무급가족종사자	4	5	5	4	4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고용률

2018년 1월 세종시 고용률은 59.5%이며, 전국은 59.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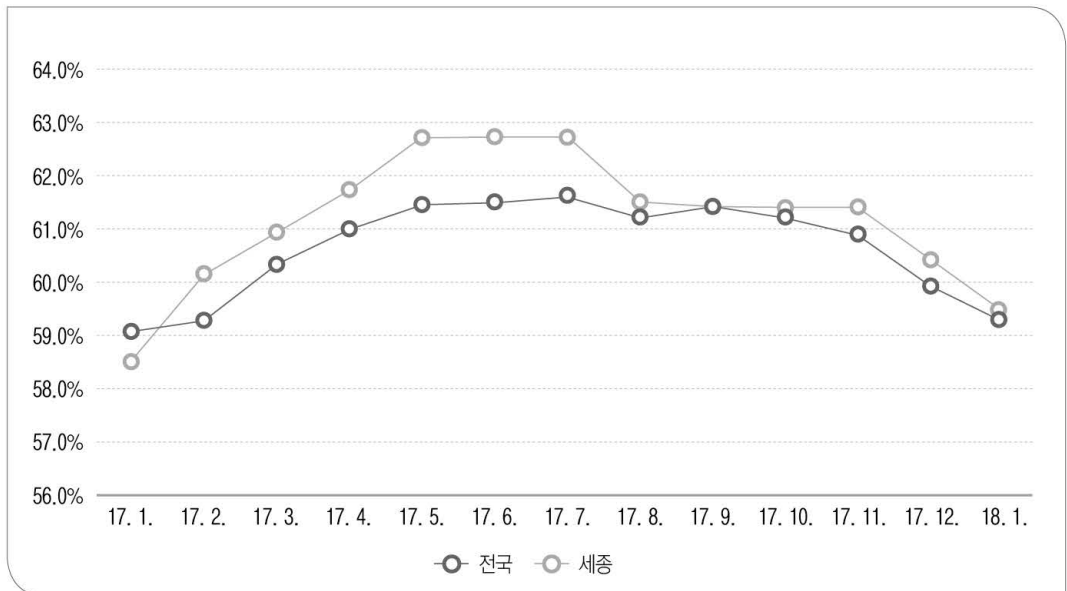
[ 고용현황 ]

단위 :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59.1	61.4	61.4	60.4	59.5	0.4	-0.9
세 중	58.6	61.2	60.9	60.0	59.3	0.7	-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전국과 세종의 고용률은 감소세



[ 전국 및 세종 고용현황 ]



## 4 직종별 취업자

2018년 1월 세종시의 직종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이 208건으로 가장 많고, 경영·사무·금융·보험직(112건), 설치·정비·생산직(75건),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40건),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35건), 영업·판매·운전·운전직(22건), 보건·의료직(18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16건), 건설·채굴직(4건), 농림어업직(1건) 순임.

[ 세종시 직종별 취업 현황 ]

단위: 건

직 종	2018년 1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12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40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5
보건·의료직	1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08
영업·판매·운전·운전직	22
건설·채굴직	4
설치·정비·생산직	75
농림어업직	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통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 : 고용노동부는 기존 분류체계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을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이에 본 지표는 기존 2007년 체계의 직종분류에서 2018년 체계로 개정하여 서비스될 예정이다.

## 5 실업자 및 실업률

### 2018년 실업자는 3천명

- 전월대비 1천명(-2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여성도 약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 2018년 1월 실업률은 2.4%

- 전월대비 0.6%p 하락,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함

### 성별 실업률

- 남성 실업률은 1.9%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0.5%p하락함
- 여성 실업률은 3.1%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0.5%p하락함

[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현황 ]

단위 : 천명, %p,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		증감률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년	전월
실업자	4	4	4	3	-1.0	-1.0	-25.0	-25.0
남 성	2	2	2	2	0.0	0.0	0.0	0.0
여 성	2	2	2	2	0.0	0.0	0.0	0.0
실업률	2.9	3.1	3.0	2.4	-0.5	-0.6		
남 성	2.4	2.7	2.2	1.9	-0.5	-0.3		
여 성	3.6	3.7	4.2	3.1	-0.5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PART. 2

# 생산



## 1 광공업 생산지수

12월 기준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113.0,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25.2,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213.1

- 세종시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3% 증가, 전국은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9% 감소
- 세종시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3.0% 증가, 전국은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3.3% 감소
- 세종시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9.3% 감소, 전국은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0.5% 증가

[ 광공업 생산지수 ]

단위 : 2010=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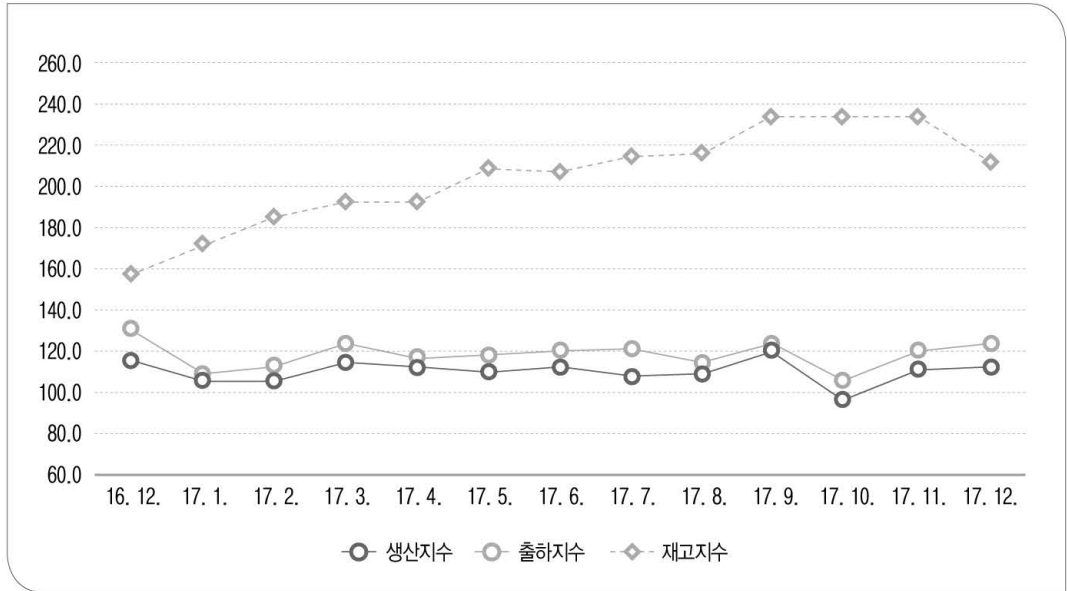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생산	118.3	113.9	104.5	113.0	110.9	-6.0	-1.9
	출하	118.5	114.5	103.6	114.1	110.3	-6.9	-3.3
	재고	124.0	130.2	136.2	135.2	135.9	9.6	0.5
세 종	생산	116.0	120.6	96.0	111.6	113.0	-2.6	1.3
	출하	132.2	125.8	106.7	121.6	125.2	-5.3	3.0
	재고	158.2	234.6	235.6	235.0	213.1	34.7	-9.3

자료 통계청,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주 : 1\*) 증감률은 동일지표 값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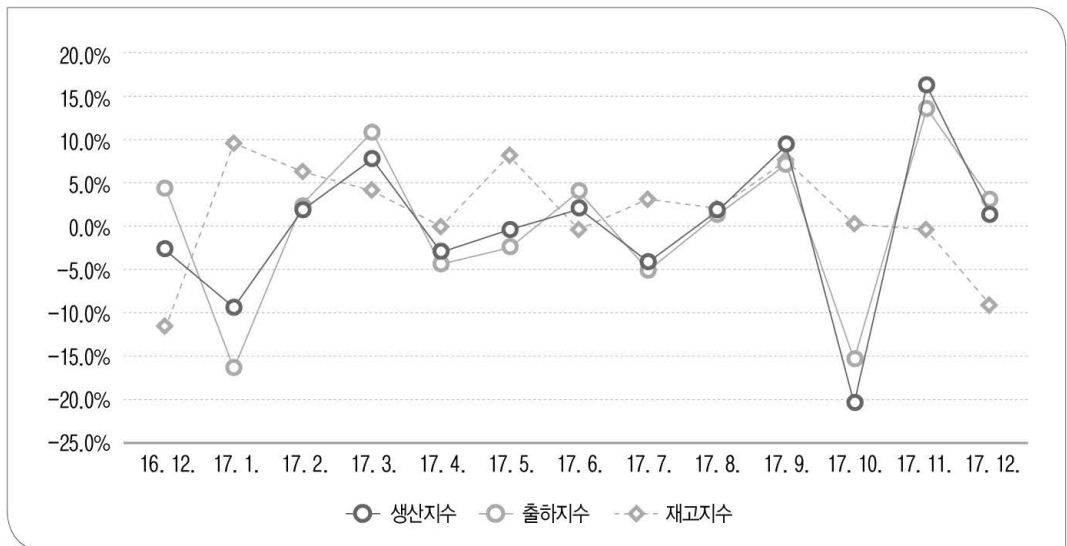
2)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로서 2개월 후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초(2월경) 실시되는 연간보정시 전년도 또는 그 이전의 원지수가 수정됨

❧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는 증가, 재고지수는 감소



[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 동향 ]

❧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 출하지수와 재고지수 모두 전월 대비 증감률 감소



[ 세종시 광공업 생산 증감률 추이 ]

## 2 소상공인 경기지수

2018년 1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6.3, 전망경기지수는 77.5

- 세종시 체감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 전월대비 22.3% 감소, 전국 전년 대비 13.7%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1.7% 감소
- 세종시 전망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 전월대비 13.9% 감소, 전국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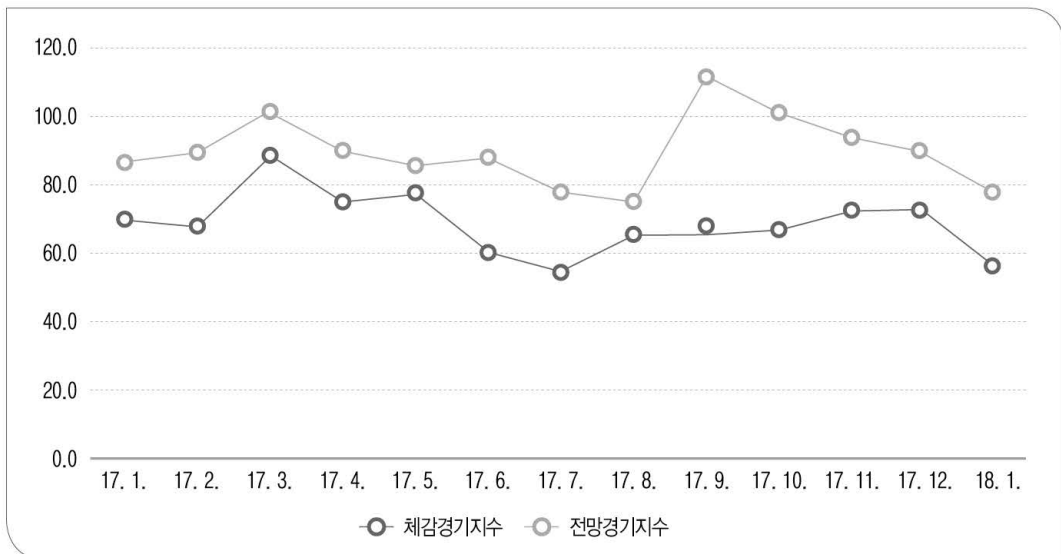
[ 소상공인 경기지수 ]

기준 : 100, 단위 : %p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	전월	
전 국	체감	60.9	72.0	65.5	66.1	64.1	56.6	-13.7	-11.7
	전망	77.6	103.3	92.6	86.8	86.8	86.9	6.6	0.1
세 종	체감	65	67.5	66.3	72.5	72.5	56.3	-19.6	-22.3
	전망	75	111.3	100.0	93.8	90.0	77.5	-10.2	-13.9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세종시 체감경기지수와 전망경기지수 모두 감소세



[ 세종시 소상공인 경기지수 동향 ]

### 3 신설법인

세종시 신설법인은 12월 기준 57개

- 세종시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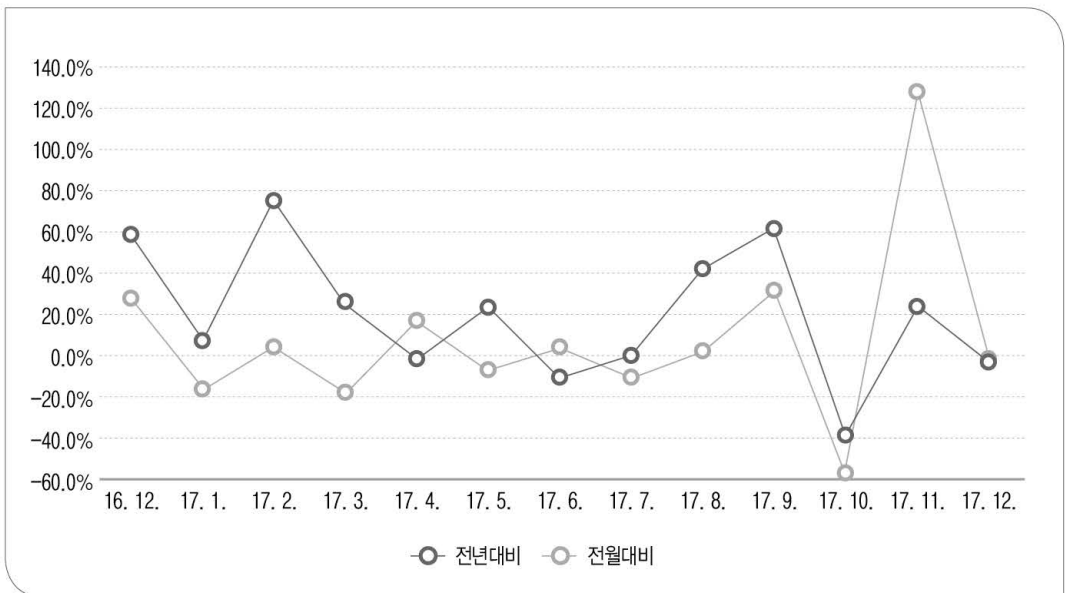
[ 세종시 신설법인수 ]

단위 : 개,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신설법인수	59	25	57	57	-3.4	0.0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세종시 신설법인 증감률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감소세



[ 세종시 신설법인 증감률 추이 ]

## 4 공장 등록 현황

12월 세종시에 위치한 공장은 총 793개소로 전월 대비 1개 기업 감소

- 목재, 전자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각각 1개소 감소하였고, 플라스틱 및 비금속 업종에서는 1개소 증가함. 공장등록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전기기계장비업(170개소), 다음으로 플라스틱 및 비금속(128개소), 식료·음료·담배업(123개소)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장 등록 현황 ]

단위: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1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공장등록 수		750	757	794	794	793
업 종 별	식료·음료·담배	130	122	123	123	123
	섬유·의복·가죽신발	22	22	22	22	22
	목재나무	24	23	25	25	24
	펄프종이·인쇄기록	51	52	52	52	52
	코크스·화학·의약	93	92	95	94	94
	플라스틱·비금속	125	129	127	127	128
	금속조립	92	91	98	99	99
	전자전기기계장비	140	151	171	171	170
	자동차운송장비	34	40	46	46	46
	가구·기타	39	35	35	35	35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PART. 3

# 물가



## 1 생활물가지수

2월 기준 세종시 생활물가지수는 채소, 과일, 일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 육란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가공식품, 일용품, 수산물, 음료주류 순
- 전월 대비 증가한 품목은 과일, 채소, 곡물, 육란, 수산물, 일용품, 음료주류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가공식품으로 나타남.

[ 세종시 생활물가지수 ]

단위 : 2015=100, %

구 분	2017년 2월	2017년		2018년		증감률	
		11월	12월	1월	2월	전년	전월
곡 물	70	80	83	81	84	20.2	4.2
육 란	121	135	135	117	121	0.2	3.2
채 소	136	161	157	159	168	23.2	5.2
과 일	112	217	145	124	137	22.2	10.7
수 산 물	70	58	68	66	67	-3.7	2.9
가공식품	114	106	109	112	106	-6.9	-5.5
음료주류	116	112	114	114	115	-0.6	1.4
일 용 품	131	118	118	120	123	-6.1	2.3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 2 농산물 소비자가격

2월 기준 세종시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파프리카, 무, 배추, 파, 사과, 배, 양파, 양배추, 오이, 쌀 순으로 증가하였고 감소한 품목은 상추로 나타남.

[ 세종시 농산물 소비자 가격 ]

단위 : 원, %

구 분	단 위	전월 평균	1월 평균	등락률
쌀	일반계(20kg)	40,565	41,990	3.5
감자	수미(100g)	-	698	-
배추	월동(1포기)	2,680	3,355	25.2
양배추	양배추(1포기)	2,475	2,655	7.3
상추	적(100g)	951	940	-1.2
오이	다다기계통(10개)	9,159	9,625	5.1
무	월동(1개)	1,463	2,088	42.7
당근	무세척(1kg)	2,980	2,980	0.0
양파	양파(1kg)	1,785	1,973	10.5
파	대파(1kg)	3,418	3,963	15.9
파프리카	파프리카(200g)	1,676	2,745	63.8
사과	후지(10개)	12,226	13,656	11.7
배	신고(10개)	18,105	20,150	11.3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월간 도·소매 정보

주 : 1) 1월 평균 가격은 2018.02.20. 기준임.

2) 배추, 무 소비자 가격은 1월~4월은 월동(중품), 5월~7월은 봄(상품), 8월~10월은 고랭지(상품, 중품), 11월~12월은 가을(상품) 가격임. 이로 인해 전월 등락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과일류 소비자 가격은 재배 품종의 차이로 사과는 9월~10월 가격이 홍로(10개)로 대체될 수 있으며, 배는 9월~10월 가격이 원황(10개)로 대체될 수 있음.

PART. 4

# 부동산



## 1 부동산 거래량

2018년 1월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884건이며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3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356건

- 세종시 주택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8.9%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20.3% 증가, 전국 전년 대비 20.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8% 감소
-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5.4%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59.1% 증가, 전국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7% 증가
- 세종시 전월세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6.0% 증가, 전국 전년 대비 21.2%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7.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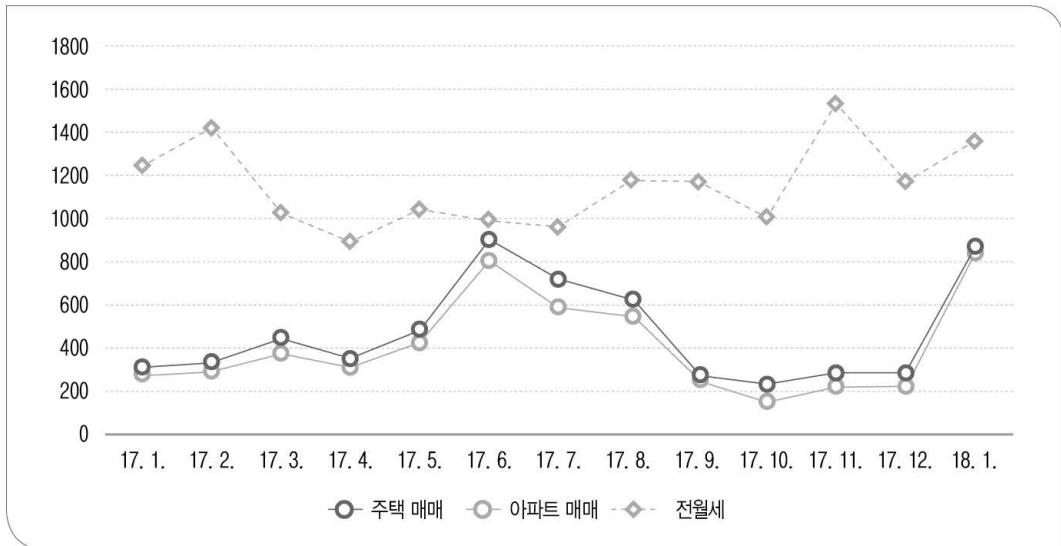
[ 부동산 거래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주택 매매	58,539	63,210	75,148	71,646	70,354	20.2	-1.8
	아파트	38,086	40,079	48,291	46,291	47,525	24.8	2.7
	전월세	123,559	120,590	135,654	127,253	149,763	21.2	17.7
세 종	주택 매매	317	216	272	276	884	178.9	220.3
	아파트	282	146	227	232	883	195.4	259.1
	전월세	1,245	1,012	1,531	1,169	1,356	8.9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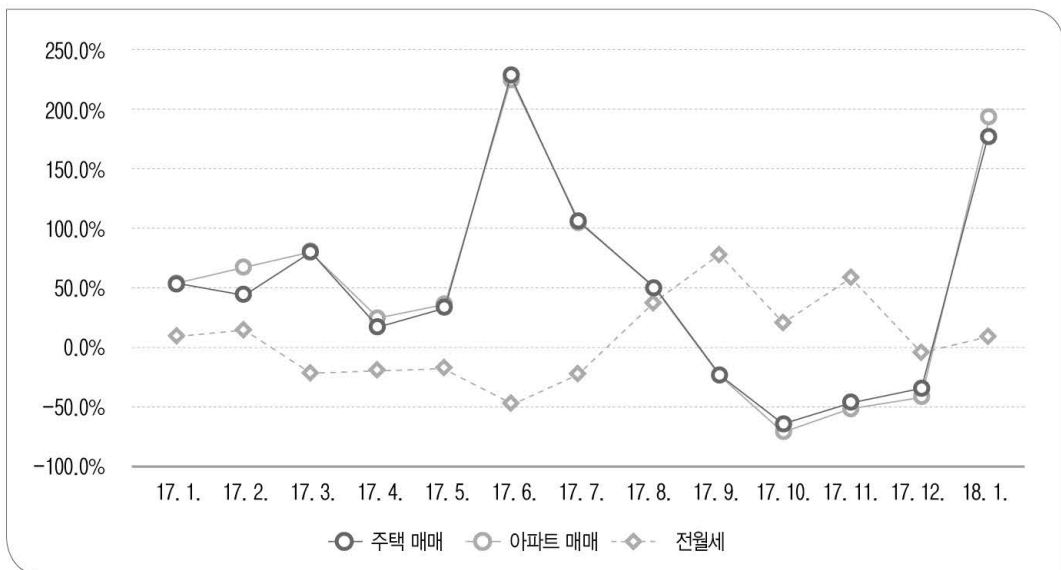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전월세 거래량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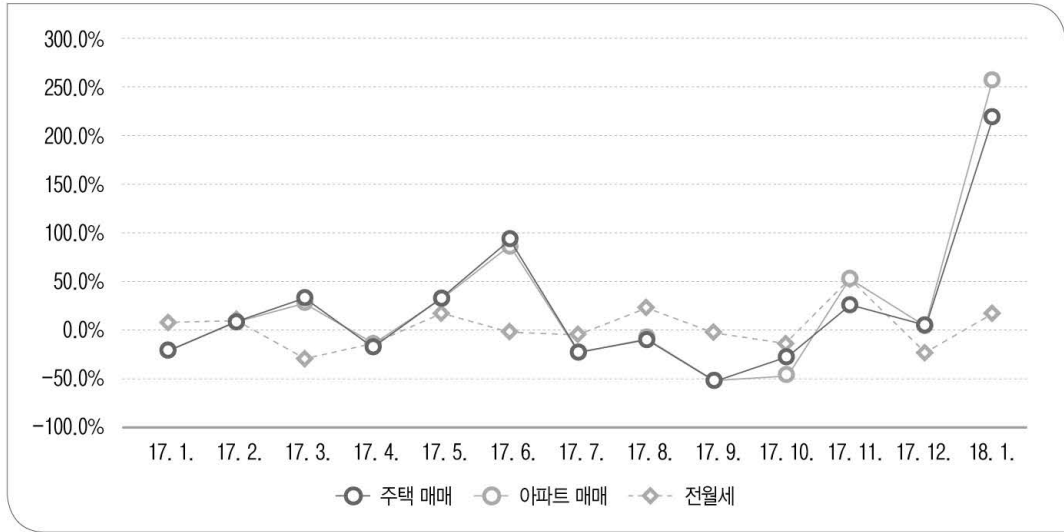
[ 세종시 부동산 거래 동향 ]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각각 -32.8%에서 178.9%, -36.6%에서 195.4%로 크게 증가, 전월세 거래량 또한 -2.2%에서 8.9%로 증가



[ 세종시 부동산 거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전월세 거래량의 전월 대비 증감률은 큰 폭으로 감소



[ 세종시 부동산 거래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

## 2 부동산 가격지수

❖ 2018년 1월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102.5,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100.5

-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1% 증가, 전국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0.2% 증가
- 세종시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보합, 전국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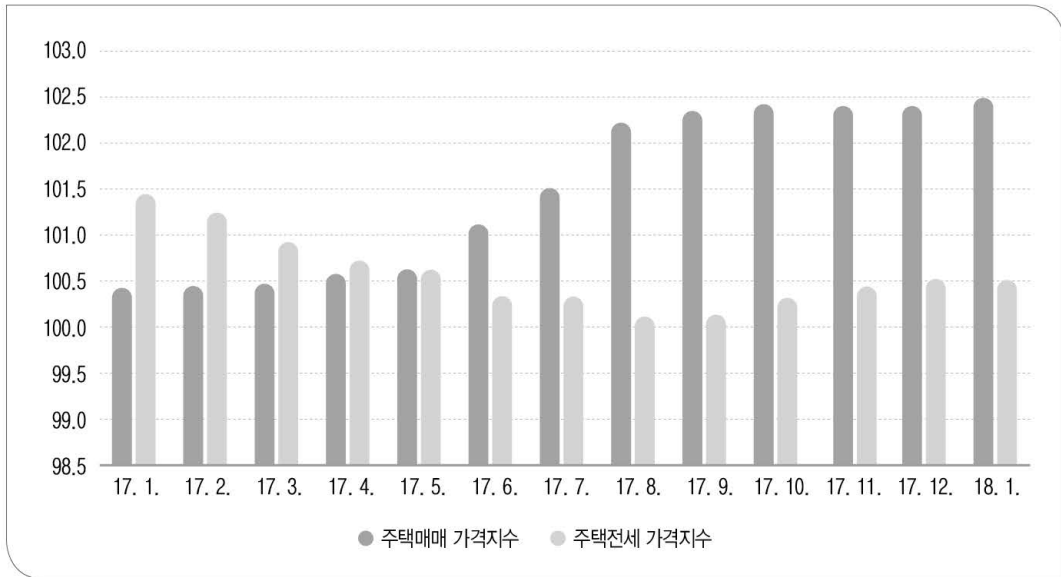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지수 ]

단위 : 2015. 12 = 100,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주택매매	101.4	102.4	102.5	102.6	102.8	1.4	0.2
	주택전세	101.6	102.0	102.0	102.0	102.1	0.5	0.1
세 종	주택매매	100.4	102.4	102.4	102.4	102.5	2.1	0.1
	주택전세	101.4	100.3	100.4	100.5	100.5	-0.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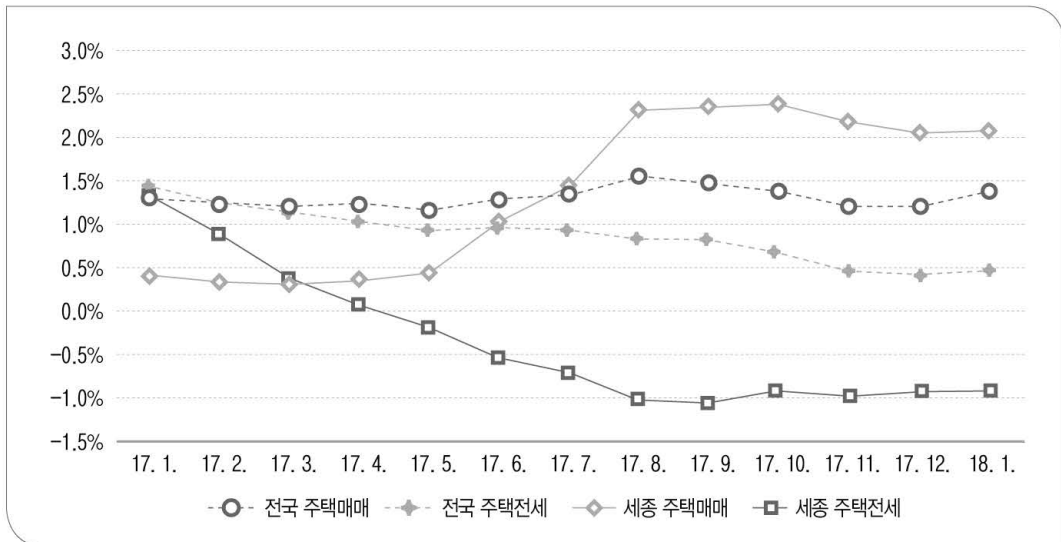
자료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 주택전세 가격지수 보합



[ 세종시 부동산 가격지수 동향 ]

❖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 증감률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고, 주택전세 가격지수 증감률은 보합.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 주택전세 가격지수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가



[ 주택매매 및 주택전세 가격지수 증감률 ]

### 3 주택 건설 실적

12월 세종시 건설 인허가 실적은 3,154건, 착공 실적은 4,345건

- 세종시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6.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30.2% 증가, 전국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00.6% 증가
- 세종시 착공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23.1%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5400.0% 증가, 전국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28.4% 증가

[ 주택건설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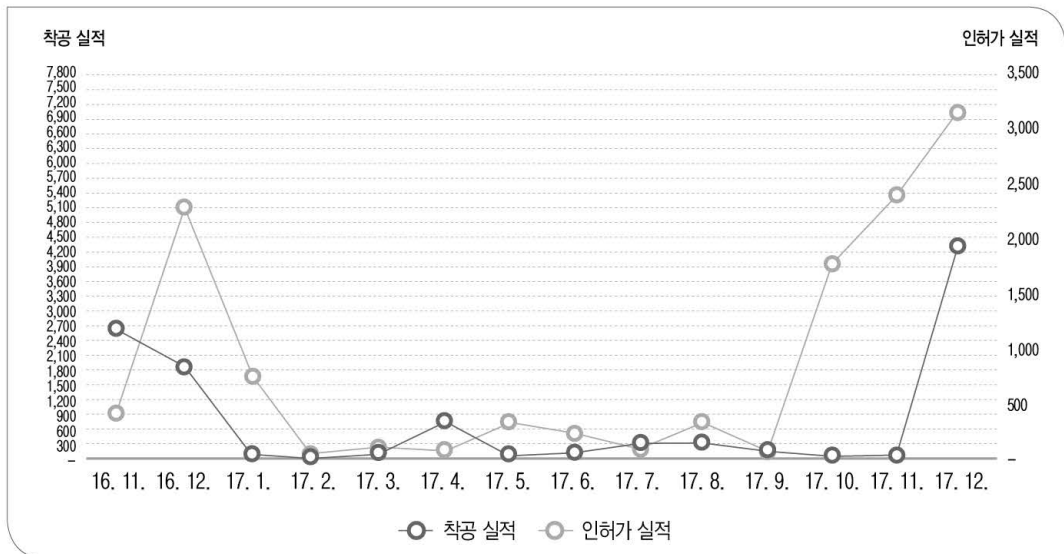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인허가	89,225	58,488	47,309	50,292	100,883	13.1	100.6
국	착공	84,204	47,888	34,823	46,573	103,892	23.4	128.4
세	인허가	2,309	60	1,729	2,423	3,154	36.6	30.2
종	착공	1,902	57	24	79	4,345	123.1	5400.0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착공)

주: 인허가실적 및 착공실적은 월계를 기준으로 표시

12월 세종시 착공 실적은 크게 상승, 인허가 실적은 계속하여 상승 추세



[ 세종시 주택건설 동향 ]

## 4 건설 수주 현황

❖ 세종시 12월 건설수주 실적은 총 8,748억 40백만원

- 전년 동월 대비 49.0% 증가, 전월 대비 155.6% 증가

❖ 공종별로는 건축은 8,306억 84백만원, 토목은 441억 56백만원

-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56.8% 증가, 전월 대비 576.2% 증가
- 토목은 전년 동월 대비 22.8% 감소, 전월 대비 79.9% 감소

❖ 발주자별로는 공공발주는 1,291억 4백만원, 민간발주는 7,457억 36백만원

- 공공발주는 전년 동월 대비 93.8% 증가, 전월 대비 45.5% 감소
- 민간발주는 전년 동월 대비 43.3% 증가, 전월 대비 605.8% 증가

[ 세종시 건설 수주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총 건설 수주	587,123	75,852	394,947	342,335	874,840	49.0	155.6	
공 종 별	건 축 <sup>1)</sup>	529,917	74,838	265,628	122,838	830,684	56.8	576.2
	토 목 <sup>2)</sup>	57,206	1,014	129,319	219,497	44,156	-22.8	-79.9
발 주 자 별	공 공	66,627	57,735	44,650	236,678	129,104	93.8	-45.5
	민 간	520,496	18,117	350,297	105,657	745,736	43.3	605.8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 : 1) 건축: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2) 토목: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3) 최근 2개월 값은 잠정치

## 5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2018년 1월 세종시 HBSI는 92.3이고 전국은 76.4

- 세종시 HBSI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0% 감소, 전국 전년 대비 29.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3% 감소

[ HBSI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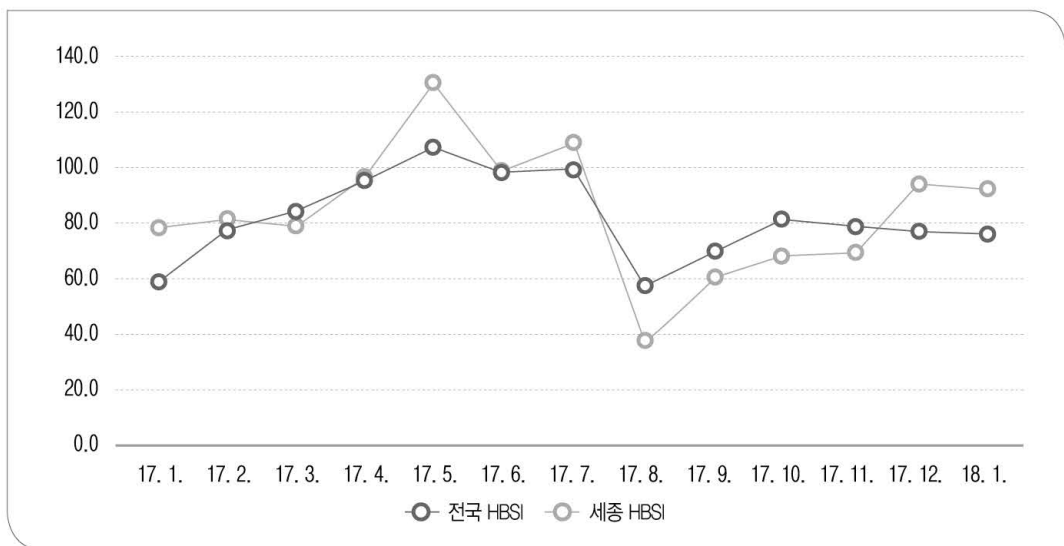
기준 : 100, 단위 :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59.0	81.3	78.7	76.6	76.4	29.5	-0.3
세 중	78.4	68.6	70.5	94.2	92.3	17.7	-2.0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 : HBSI는 주택경기실사지수를 나타냄

세종시 HBSI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HBSI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 세종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동향 ]



PART. 5

# 수·출입



## 1 무역 수지

» 세종시 12월 무역수지는 1,292만 달러 흑자

- 세종시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904.4%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329.5% 감소, 전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28.4% 감소
- 세종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0.9%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3% 감소
- 세종시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9.7%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3.6% 증가

### [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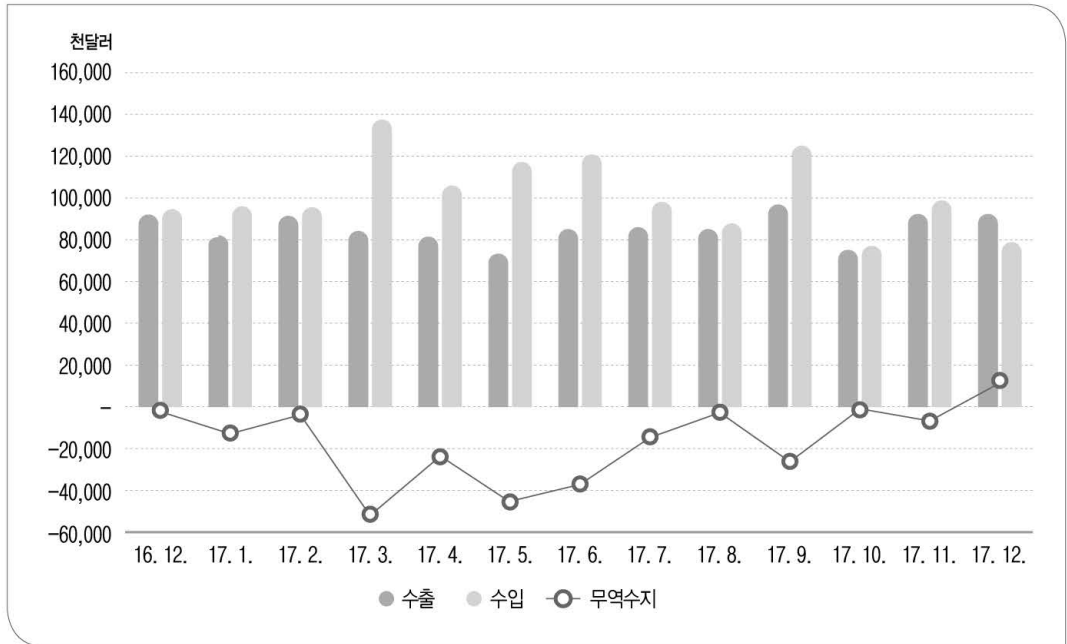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무역수지	6,764,923	13,419,356	6,934,677	7,693,685	5,511,073	-18.5	-28.4
	수 출	45,068,880	55,115,240	44,791,239	49,707,197	49,040,139	8.8	-1.3
	수 입	38,303,957	41,695,884	37,856,562	42,013,512	43,529,066	13.6	3.6
세 종	무역수지	-1,606	-26,682	-1,292	-5,629	12,918	-904.4	-329.5
	수 출	92,407	96,557	74,252	92,762	91,919	-0.5	-0.9
	수 입	94,013	123,240	75,544	98,391	79,000	-16.0	-19.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 무역수지 현황의 당해년도 월간 수치는 연초 2월 중(2월 15일) 전년도 데이터가 확정되기 전까지 매달 변경되어 서비스됨

❖ 세종시 무역수지는 11월에 비해 대폭 증가함. 11월에 비해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매우 크기 때문임.



[ 세종시 무역수지 및 수·출입 동향 ]

2 수출

2017년 11월 기준 전국 수출액은 490억 4천만달러, 세종시 수출액은 약 9천 2백만달러

- 세종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 전월 대비 0.9%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 품목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잡제품이고, 감소한 품목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순
- 전월 대비 전체 품목이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광산물, 농림수산물, 잡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크게 증가함

[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45,068,880	55,115,240	44,791,239	49,707,197	49,040,139	8.8	-1.3
세 증	92,407	96,550	74,252	92,762	91,919	-0.5	-0.9
농림수산물	5,913	2,885	1,902	3,603	4,306	-27.2	19.5
광산물	10	2	1	8	37	270.0	362.5
화학공업제품	21,817	24,622	21,043	26,359	23,833	9.2	-9.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550	8,375	6,624	10,321	8,530	-10.7	-17.4
섬유류	2,137	2,548	1,768	1,906	2,019	-5.5	5.9
생활용품	1,405	510	481	276	459	-67.3	66.3
철강금속제품	2,093	1,959	1,197	1,646	1,925	-7.1	17.0
기계류	14,842	16,839	11,944	15,266	20,160	35.8	32.1
전자전기제품	34,588	38,615	29,126	33,108	30,088	-13.0	-9.1
잡제품	72	202	164	270	561	679.2	107.8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1) 품목 구분은 MTI 1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률 비교에서 제외함.

11월 기준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은 5천 6백만달러

- 10개 품목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 전월 대비 19.5%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수출 품목은 의약품, 제어용케이블, 평판디스플레이, 필름류, 자동차 부품 순. 감소한 품목은 전동축및기어, 인쇄회로, 기타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전동기 순
- 전월 대비 증가한 수출 품목은 의약품, 기타플라스틱제품, 필름류, 평판디스플레이, 제어용케이블, 전동기, 자동차부품, 전동축및기어 순. 감소한 품목은 인쇄회로, 합성수지 순

[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6년 11월	2017년				증감률	
		8월	9월	10월	11월	전년	전월
세 증	61,330	54,151	61,593	46,767	55,896	-8.9	19.5
인쇄회로	13,738	13,198	12,726	12,948	10,351	-24.7	-20.1
평판디스플레이	13,076	15,512	16,712	9,924	13,735	5.0	38.4
자동차부품	8,057	6,570	9,338	6,155	8,114	0.7	31.8
합성수지	7,037	5,824	7,190	6,137	5,986	-14.9	-2.5
필름류	6,103	4,143	4,144	4,147	6,073	1.0	46.4
의약품	2,086	1,664	2,090	1,046	2,633	26.2	151.7
기타플라스틱제품	3,763	1,848	3,122	1,934	3,100	-17.6	60.3
제어용케이블	1,463	1,634	1,396	1,158	1,568	7.2	35.4
전동기	4,120	2,410	3,639	2,649	3,582	-13.1	35.2
전동축 및 기어	1,977	1,348	1,236	669	754	-61.9	12.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 : 1) 품목 구분은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률 비교에서 제외함.

3 수입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수입액은 435억 3천만달러, 세종시 수입액은 약 9,192만달러

- 세종시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 전월 대비 19.7%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 순
- 전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광산물,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잡제품, 농림수산물,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순

[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전 국	38,303,957	41,695,884	37,856,562	42,013,512	43,529,066	13.6	3.6
세 중	94,013	123,240	75,544	98,391	79,000	-16.0	-19.7
농림수산물	33,840	18,228	16,155	41,080	17,083	-49.5	-58.4
광산물	120	159	109	116	462	285.0	298.3
화학공업제품	17,422	21,545	19,410	18,313	21,681	24.4	18.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261	535	704	577	590	-73.9	2.3
섬유류	2,866	2,305	2,015	3,111	2,655	-7.4	-14.7
생활용품	1,268	1,665	1,550	1,625	1,534	21.0	-5.6
철강금속제품	3,698	3,919	4,310	6,292	6,234	68.6	-0.9
기계류	6,342	48,953	5,735	3,802	8,315	31.1	118.7
전자전기제품	26,097	25,907	25,550	23,348	20,439	-21.7	-12.5
잡제품	100	25	5	127	6	-94.0	-95.3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1) 품목 구분은 MTI 1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입액 증감률 비교에서 제외함.

12월 기준 세종시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액은 4천 4백만달러

- 상위 10개 품목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5% 감소, 전월 대비 33.6%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펄프, 기타석유화학제품,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순이며, 감소한 품목은 기타플라스틱제품, 낙농품, 가축육류, 곡류, 평판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원료 순
- 전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펄프,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순이며, 감소한 품목은 가축육류, 곡류, 기타정밀화학원료, 낙농품, 평판디스플레이, 기타플라스틱제품, 집적회로반도체 순

[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세 중	61,264	47,741	46,363	66,887	44,406	-27.5	-33.6
곡류	25,546	10,913	10,514	35,297	13,372	-47.7	-62.1
평판디스플레이	14,528	14,620	14,632	11,298	9,256	-36.3	-18.1
기타정밀화학원료	5,661	7,301	5,403	7,595	4,037	-27.4	-46.8
펄프	4,779	6,250	7,515	4,868	10,774	125.4	121.3
낙농품	2,589	2,393	2,564	1,048	800	-69.1	-23.7
가축육류	2,054	1,836	1,203	2,252	644	-68.6	-71.4
기타석유화학제품	1,628	1,607	2,340	1,425	2,469	51.7	73.3
기타플라스틱제품	1,878	211	305	302	257	-86.3	-14.9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377	1,143	787	1,334	1,414	2.7	6.0
집적회로반도체	1,324	1,467	1,100	1,468	1,383	4.5	-5.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 : 1) 품목 구분은 MP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률 비교에서 제외함.

PART. 6

# 금융



## 1 수신

» 2017년 11월 세종시 예금은행 수신 잔액은 7조 2천 3백억원

-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 전월 대비 1.1% 증가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9조 5천억원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 전월 대비 6.2% 증가

### [ 세종시 수신 현황 ]

기간 중 증감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11월 잔액	2017년				증감률 <sup>3)</sup>	
		9월	10월	11월	11월 잔액	전년	전월
예금은행 <sup>1)</sup>	60,394	-574	888	815	72,304	19.7	1.1
요구불 예금	5,578	218	36	112	8,209	47.2	1.4
저축성 예금	53,952	-821	850	727	62,927	16.6	1.2
시장성 수신	865	29	2	-24	1,168	35.0	-2.0
비은행금융기관 <sup>2)</sup>	78,086	-35,818	42,192	5,556	94,700	21.3	6.2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 : 1) 예금은행 수신=요구불 예금+저축성 예금+시장성 수신

2)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에는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이 포함됨.

3) 세종시 여·수신현황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은 말잔을 기준으로 계산함.

## 2 여신

2017년 11월 세종시 예금은행 여신 잔액은 7조 6천억원

- 예금은행 여신은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 전월 대비 0.3% 증가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2조 7천억원

-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 전월 대비 1.6% 증가

### [ 세종시 여신 현황 ]

기간 중 증감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11월 잔액	2017년				증감률 <sup>2)</sup>	
		9월	10월	11월	11월 잔액	전년	전월
예금은행 <sup>1)</sup>	65,559	408	1,334	224	75,928	15.8	0.3
기업대출	127,719	533	460	303	16,670	31.1	1.9
가계대출	46,363	-128	900	-61	52,763	13.8	-0.1
공공·기타	6,478	3	-24	-19	6,495	0.3	-0.29
비은행금융기관	23,313	319	92	415	26,944	14.1	1.6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 : 1) 예금은행 여신=기업대출+가계대출+공공·기타

2) 세종시 여·수신현황의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은 말잔을 기준으로 계산함.



### 3 어음부도율

2017년 11월 기준 세종시 어음교환액은 993억원, 어음부도율은 0.00

- 어음교환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 전월 대비 7.8% 증가
- 어음부도액, 어음부도율 모두 전월 대비 보합

[ 세종시 어음 부도율 ]

단위 : 천만원, %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교환액	10,622	7,580	9,880	9,209	9,927	-6.5	7.8
부도액	0	0.012	0.009	0.000	0.000	0	0
부도율	0	0.02	0.010	0.000	0.000	0	0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율

PART. 7

# 지역특성



## 1 인구 순이동

12월 기준 세종시 인구 순이동은 3,059명

- 세종시 인구 순이동은 전년 동월 대비 32.5% 증가, 전월 대비 17.6% 증가
- 전입인구는 크게 감소했던 9월 이후 증가 추세, 전출인구는 전월 대비 증가
- 전입인구는 대전, 충남, 충북, 경기, 서울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순이동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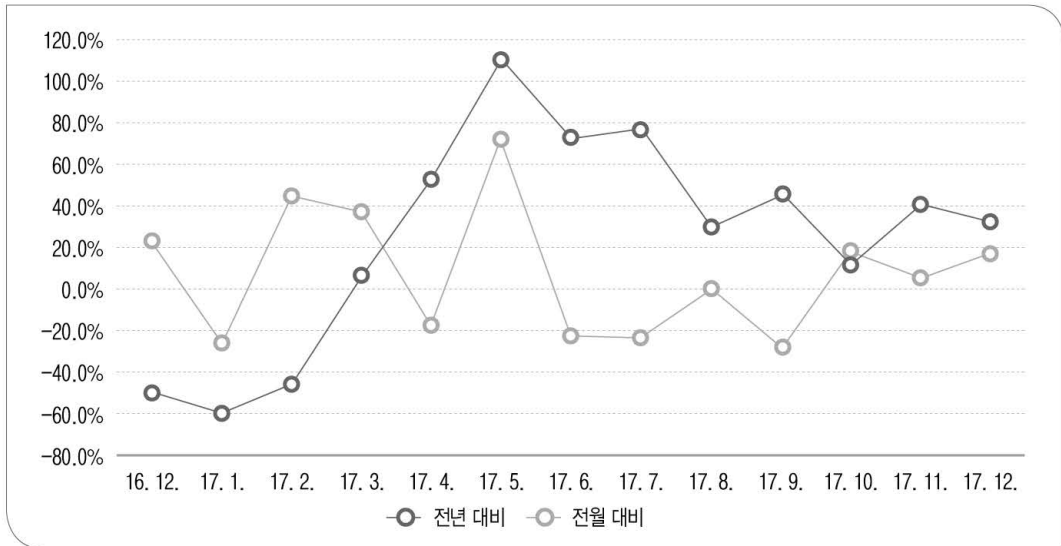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순 이 동	2,309	2,068	2,455	2,601	3,059	32.5	17.6
총 전 입	6,617	5,518	5,820	6,252	7,115	7.5	13.8
서울특별시	545	450	338	422	473	-13.2	12.1
부산광역시	101	55	68	49	85	-15.8	73.5
대구광역시	70	55	47	53	70	0.0	32.1
인천광역시	87	92	93	76	87	0.0	14.5
광주광역시	42	41	42	39	88	109.5	125.6
대전광역시	1,621	1,485	1,691	1,967	2,164	33.5	10.0
울산광역시	21	21	22	14	23	9.5	64.3
세종특별자치시	1,938	1,543	1,766	1,794	1,909	-1.5	6.4
경기도	673	506	434	457	559	-16.9	22.3
강원도	73	53	40	42	64	-12.3	52.4
총 전 출	4,308	3,450	3,365	3,651	4,056	-5.8	11.1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순 이동	2,309	2,068	2,455	2,601	3,059	32.5	17.6
총 전입	6,617	5,518	5,820	6,252	7,115	7.5	13.8
충청북도	477	431	443	528	549	15.1	4.0
충청남도	597	506	533	498	574	-3.9	15.3
전라북도	130	90	98	103	166	27.7	61.2
전라남도	55	38	50	44	77	40.0	75.0
경상북도	101	60	73	62	103	2.0	66.1
경상남도	70	74	65	85	100	42.9	17.6
제주특별자치도	16	18	17	19	24	50.0	26.3
총 전출	4,308	3,450	3,365	3,651	4,056	-5.8	11.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세종시 인구 순이동은 전년 동월 대비 32.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7.6% 증가

- 세종시 인구 순이동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증감률은 소폭 감소
- 전월 대비 증감률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다소 증가



[ 세종시 인구 순이동 증감률 동향 ]

## 2 자동차 등록대수

2018년 1월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131,358대

-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 전월 대비 1.3% 증가

[ 세종시 자동차 등록 현황 ]

단위 : 대, %

구 분	2017년 1월	2017년			2018년 1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합 계	111,575	126,595	128,165	129,700	131,358	17.7	1.3
승 용	93,565	107,599	109,156	110,610	112,145	19.9	1.4
승 합	3,883	4,052	4,046	4,052	4,083	5.2	0.8
화 물	13,878	14,678	14,693	14,765	14,848	7.0	0.6
특 수	249	266	270	273	282	13.3	3.3

자료 통계청,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3 연료소비

2017년 11월 세종시 유류소비량은 14,862kl이고 가스소비량은 12,408천m<sup>3</sup>

- 유류소비량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전월대비 6.3% 증가
- 가스소비량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전월대비 33.6% 증가

[ 세종시 연료소비 현황 ]

단위 : kl, 천m<sup>3</sup>, %

구 분	2016년 11월	2017년				증감률		
		8월	9월	10월	11월	전년	전월	
유 류	합 계	17,044	12,475	14,018	13,978	14,862	-1.8	6.3
	휘발유	3,671	3,413	3,319	3,478	3,319	0.1	-4.6
	경유	10,576	8,525	9,755	9,210	9,653	-1.4	4.8
	등유	2,331	451	814	1,231	1,802	9.5	46.3
	빙커C유	466	86	130	59	87	-77.8	48.6
가 스	합 계	15,492	8,609	9,587	9,289	12,408	8.3	33.6
	프로판	1,794	2,214	2,103	2,569	2,816	8.7	9.6
	부탄가스	1,584	1,543	1,455	1,518	1,590	-0.2	4.7
	도시가스	12,114	4,852	6,029	5,202	8,002	9.9	53.8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석유공사

## 4 전력사용

2017년 12월 세종시 전력사용량은 264,776 MWh

-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전월 대비 9.4% 증가

### [ 세종시 전력사용 현황 ]

단위 : M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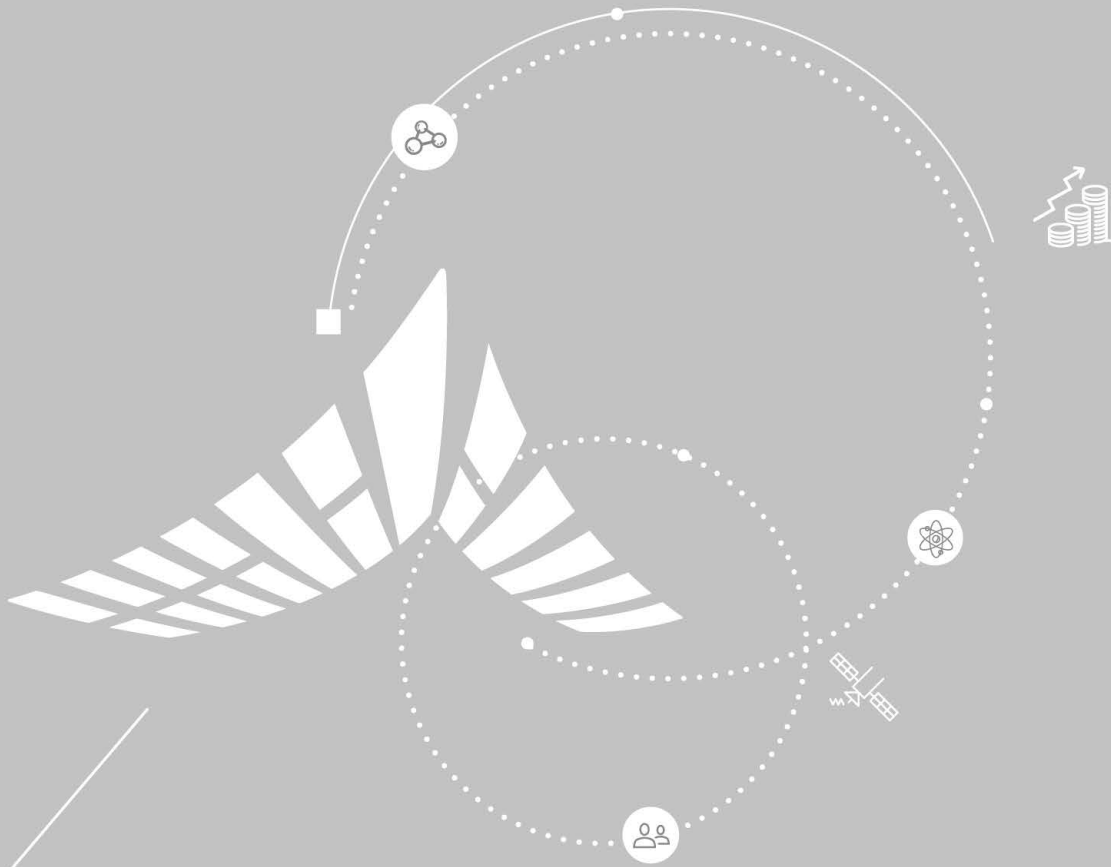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증감률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전월
합 계	255,603	245,761	215,765	242,114	264,776	3.6	9.4
가로등	2,691	2,313	2,487	2,711	2,819	1.3	4.0
교육용	5,051	5,224	4,447	5,306	8,185	22.8	54.3
농사용	9,206	6,021	4,890	8,832	6,346	5.6	-28.2
산업용	141,717	148,813	131,735	143,461	146,491	-4.3	2.1
일반용	37,592	45,945	38,247	41,377	51,963	17.0	25.6
주택용	28,395	35,566	30,787	32,839	35,711	20.3	8.7
심 야	8,047	1,878	3,172	7,587	13,260	2.1	74.8

자료 한국전력(KEPCO), 전력통계속보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 세종 경제

[www.dsi.re.kr](http://www.d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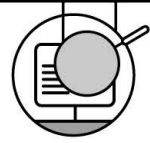
---

## II. 경제 ISSUE

- 주요 경제 ISSUE
- 세종 주요 경제 ISSUE



MAJOR ECONOMY ISSUE



# 주요 경제 ISSUE<sup>1)</sup>

## 2018년 이머징 이슈

### 1) 기술분야

구 분	이 슈
기반기술	빅데이터, 분석 신뢰성과 데이터 리터러시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를 시작으로 전 분야 생태계 확산 준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필요성 부상
	블록체인, 새로운 콘텐츠 거래기반으로 부상
	5G, 지능화기술과 결합, 공공부문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 프라이빗/하이브리드로
	정보보안, 새로운 대안으로 양자암호통신 개발
응용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다각화를 앞두고 정체와 확산의 갈림길
	핀테크,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시스템 재설계
	헬스케어, 보건의료 데이터의 기회와 직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상현실, 더욱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 경쟁

#### ① 빅데이터, 분석 신뢰성 담보와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 대두

-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증가와 대학에 관련 학과 신설 등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오남용과 잘못된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훈련 위주의 교육보다 문제해결 중심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통한 미래 변화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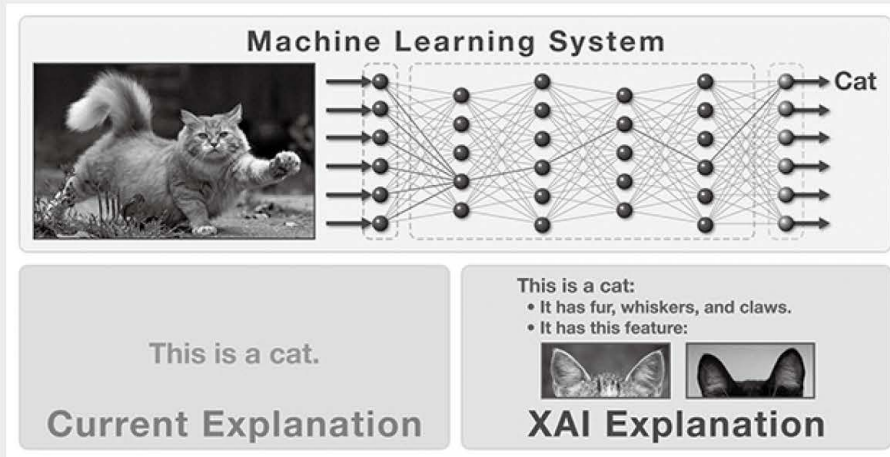
#### ②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를 시작으로 전 분야 생태계 확산 준비

-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범위가 가전제품과 원격검침에서 스마트홈 전분야와 스마트 팩토리로 확산되고 있음. 반면, 센서 기술의 성장에 비해 IoT 통신표준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화 협력체 oneM2M(원엠투엠)이 국제 공식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어 시장 확대 전망

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EAR & Future INSIGHT Vol. 8 빅데이터로 본 2018년 이머징 이슈'에서 발췌 재정리

③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필요성 부상

-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머신러닝 방식에 대한 보완장치와 보완기술의 필요성 부상하고 있음. 인공지능이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등장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 사물 인식 딥러닝에 적용될 경우, 어떤 사물을 고양이로 인식했을 때, 털과 콧수염, 발톱, 귀 모양 등으로 그 사물을 고양이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게 된다.

자료 : DARPA에서 인용한 것을 경향신문 2018.02.18.에서 재인용

④ 블록체인, 무결성 입증이 필요한 콘텐츠의 새로운 거래 기반으로 활용 준비

-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금융·공공·물류 분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악, 유통/계약, 전자투표, 부동산 등 무결성 입증이 필요한 콘텐츠 거래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⑤ 5G, 지능화기술과 결합하여 공공부문 확산 시작

-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발생으로 드론, IoT센싱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정보 송수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평창올림픽을 통한 실용성 검증으로 5G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에 대한 대중 인식제고 전망

⑥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에 따른 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산

- 도입비용이 낮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관리하던 기업들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동·확산 중
  -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공 인터넷 망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체 인프라를 함께 활용
  -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기업이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활용

⑦ 정보보안, 기존 암호화 방식의 대안으로 양자암호통신 개발 추진

- 해킹 기술의 지능화로 피해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호 인력 양성과 최신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 기술이 부상

⑧ 공유경제, 서비스 다각화를 앞두고 정체와 확산의 갈림길

- 우버, 에어비앤비 등 초기 모델의 성공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주택, 자동차, 오피스, 주차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공유(셰어링)서비스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음. 신규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거래자 간의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

⑨ 핀테크,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시스템 재설계

- 모바일 결제와 송금서비스로 시작한 핀테크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각광을 받으며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필수 도입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 온라인 기반 서비스들이 오프라인 결제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 가속 전망

⑩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기회와 도전

-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논의가 부상하고 있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특정 분야와 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⑪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로

- 승용차에 집중되었던 자율주행기술이 드론, 택시, 무인 트럭, 농기계 등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스마트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견인하고 있음. 분야별 특성과 도입 당사자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환경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과 학습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노력 필요

⑫ 가상현실, 더욱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 경쟁

- 대용량 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발과 함께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SW기술이 성장하여 실사 콘텐츠 구현 등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 영상 데이터의 축적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콘텐츠가 발굴된다면 기술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



## 2) 경제분야

구분	이슈
경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환경 변화 대응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부채 상생역제 동시 해결
	보호무역주의와 전방위 통상압박 대응
	북한리스크와 금융정책 불확정성
	공유 플랫폼 성장과 규제 걸림돌

### ①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 대응

- 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편의점, 식당, 경비, 청소 등 자영업 및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고용안정성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일자리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 측면으로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소비증대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②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부채 상생역제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8.2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비핵심 자산의 매도와 가격조정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금리인상 효과도 가세하여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③ 전방위 통상압박 대응 방안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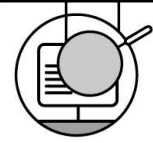
- 미국의 세이프가드 부활 가능성이 유력해진 가운데 반덤핑 관세, 무역확장법 적용 등 통상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가 늘어나고 있음. 미국은 한·미 FTA의 적용 문제 점검, 시장접근 현안 해결,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재계와 함께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④ 북한리스크로 금융 정책의 불확정성 잔존

- 2018년에도 북한 리스크는 존재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추가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여 위협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전략적 대응 필요

### ⑤ 공유 플랫폼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규제 걸림돌 해소

- 글로벌 경제는 공유경제에 대한 열풍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도 공유경제를 국가 핵심 성장전략 중 하나로 선정함.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조세제도 미비 등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등 일부에서 사업화가 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자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함. 공유경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해소, 공유서비스의 품질과 책임성, 소비자 보호와 조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 1 싱싱장터 이용현황

세종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는 건강한 시민, 행복한 농민, 함께하는 세종시를 비전으로 정예농가를 육성하고 관계시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SK, 농협, 축협,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세종로컬푸드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다.

싱싱장터 도담점은 지난 2017년 한해 150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단일매장 기준 전국 최고를 달성하였으며, 소비자 회원수가 2만 3,000명에 달해 지난해 말 농식품부 지특회계 최우수 사례에 선정돼 우수 직거래 사업장 선정과 함께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세종시는 2018년 1월 2일 2호점(아름점)을 개장해 월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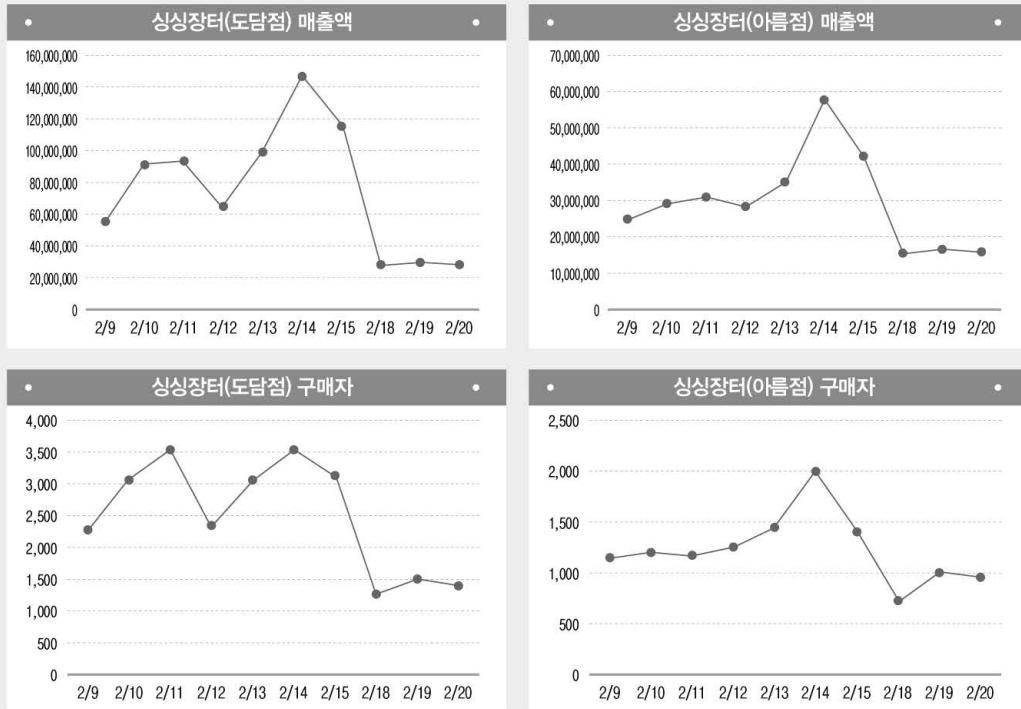
올 2월 설 명절 연휴(2월 15, 16, 17일)를 앞두고 싱싱장터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싱싱마트(도담점)의 설 명절 연휴 주간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12일(월) 65백만원에서 13일(화) 101백만원, 14일(수) 147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월평균 매출액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싱싱마트(아름점) 또한 12일(월) 매출액이 29백만원에서 13일(화) 36백만원, 14일(수) 58백만원, 15일 43백만원까지 2배 이상 높게 증가하였다. 구매자수 또한 14일(수) 2천여 명이 넘으며 월평균 구매자수의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세종시 싱싱장터의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설 명절 장보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인근 지역에서 출하된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싱싱장터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2018.01.25.) "세종 로컬푸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현판식"에서 발췌 재정리



[ 상상장터 도담점, 아름점 매출액, 구매자수 현황 ]

## 2 세종 상상매장 청년창업 C-LAB(Challenge Laboratory)

세종시는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상상매장)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세종시는 2월 초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상상매장)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 상상매장 청년창업 C-LAB(Challenge Laboratory) 운영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상상매장 청년창업 C-LAB’은 청년창업가들이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 8개월간 도전공간(창업플랫폼)과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받아 청년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기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청년창업 도전공간은 상상매장 도담점에 이어 개장한 아름점이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 2팀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청년창업가들은 다중 집합장소인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 빠르게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세종형로컬푸드 상상매장을 통해 청년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청년창업가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청년창업 도전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창업벤처 전담부서를 설치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2018.02.05)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청년창업 성공사례 만든다’에서 발췌하여 정리

### 3 세종시 스마트시티 조성

정부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있어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 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2 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 국가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전방위 지원에 착수하며,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18. 下)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로 선정된 세종 5-1 생활권의 시범도시 사업은 세종시 연동면 일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22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의 기본 컨셉안은 에너지 관련 에너지 관리시스템(B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교통 면에서는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 스마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생활·안전 측면에서는 스마트 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의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sup>3)</sup>

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8. 01. 29.)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에서 발췌 재정리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 세종 경제

[www.dsi.re.kr](http://www.dsi.re.kr)



---

## 부 록

- Economic Trends
- 용어해석

APPENDIX



#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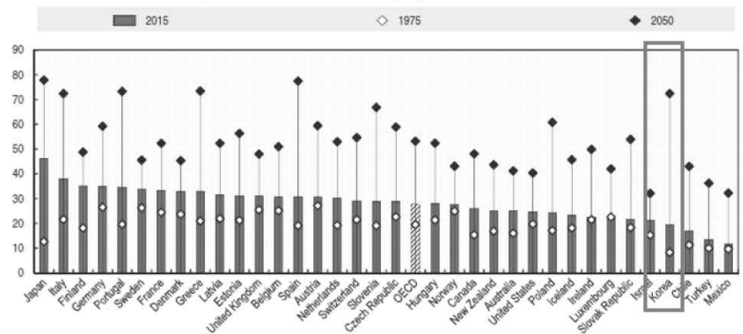
## 고령인구 대책 본격화

한국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2000년 진입)를 지나 2017년 고령(노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며 인구 변화가 이루어 졌다.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 중인 것이다. [그림 1]은 2050년의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어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 저소득 인구의 주거환경, 경제생활, 노인범죄, 정서안정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인구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sup>1)</sup>

Figure 1.1.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ill almost double in the next 35 years on average  
Number of people older than 65 years per 100 people of working age (20-64), 1975-2050



Note: The projected old-age dependency ratios differ based on the sources used. This report is based on UN data for comparison reasons. The largest differences are the following: according to Eurostat the old-age dependency ratio (65+/20-64) would increase by 39 and 19 percentage points between 2015 and 2050 in Spain and Austria, respectively, against 47 and 29 points with UN data. On the other hand, it would increase in Latvia by 33 points based on Eurostat against only 21 points with UN data.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그림 1. 2050년 노년부양비\*는 거의 2배 상승]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주\* :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담해야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함.

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EAR & Future INSIGHT Vol. 8 빅데이터로 본 2018년 이머징 이슈'에서 발췌 재정리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완전한 진입은 소비, 세수, 투자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각종 요소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인구 오너스'의 기초가 장시간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선인 2.1명보다 더 떨어져 위기선인 1.3명 아래에서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고령화율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18년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구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절벽'을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 역시 그러한 맥락이다.<sup>2)</sup>

「한국이 소멸한다」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를 2030년으로 본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해가 시발점이다. 노년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고스란히 사회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빈곤, 질병, 고립이라는 삼중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의료와 간병 서비스 관련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갈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끝도 알 수 없는 간병을 해야 할 노년 인구가 넘쳐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2016년 적자로 전환됐다. 2025년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분이 2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sup>3)</sup>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그림 2]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8.2% 인데 반해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이 될 현세대를 부양하는 구조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이 같이 반박했다. 공적연금 지출을 '금액'이 아닌 '비중'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Key indicators: Korea		Korea	OECD
Average worker earnings (AW)	KRW (million)	43.86	44.21
	USD	36 328	36 622
Public pension spending	% of GDP	2.6	8.2
Life expectancy	at birth	82.3	80.9
	at age 65	20.4	19.7
Population over age 65	% of working- age population	19.4	27.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35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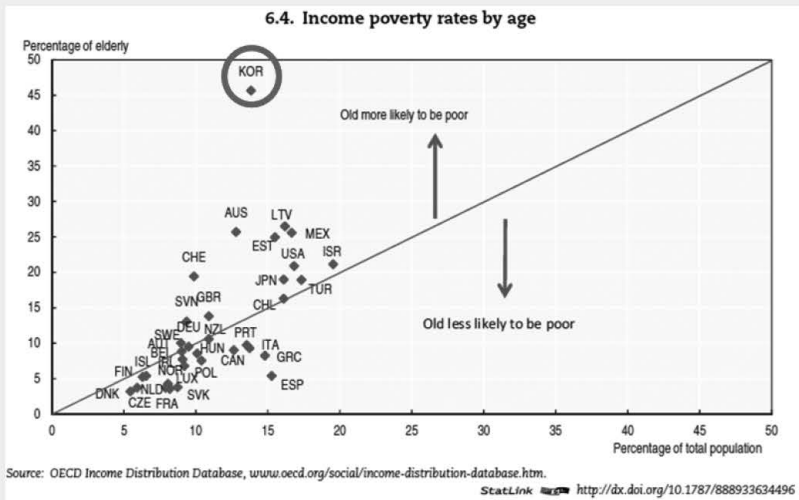
[그림 2.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Country profiles-Korea

2)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64>, "[신간] 한국이 소멸한다...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2018년 2월 1일

3)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0826801>, "저출산 · 고령화 전담할 '인구부총리' 신설해야", 2018년 2월 8일

김 교수는 “한국은 과도한 연금 지출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 지출로 인해 노인이 될 현세대가 수십 년을 빈곤 속에 살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림 3]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며 한국의 연령에 따른 소득 빈곤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령층이 빈곤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낸다. 2060년을 전후로 이뤄질 국민연금 기금 소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sup>4)</sup>



[그림 3. 연령에 따른 소득 빈곤률]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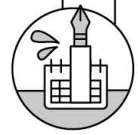
이에 전영수 저자는 ‘세대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청년과 노년은 결국엔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 아래 실리적인 상생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년이 연금을 잘 받게 되는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부모 세대의 육아 지원 등 세대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문제는 30년 세대 정책을 전제로 끈기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인기 영합을 위한 퍼주기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 탓에 다양한 분야의 이해집단이 반발하거나 거부, 저항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저자는 강한 리더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인구부총리’ 신설을 제안한다.<sup>5)</sup>

결론적으로, 2018년 한국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공실버주택, 성년후견인 제도 등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4) 머니 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120714188022798&outlink=1>, “[노후빈곤 대책] 공적연금 해법” 세대연대, 순차적 인상”, 2018년 2월 14일

5)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0826801>, “저출산 · 고령화 전담할 ‘인구부총리’ 신설해야”, 2018년 2월 8일



# 용어해석



## 광공업 생산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통하여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수준과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단,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 '생산'은 사업체의 자체생산과 위탁생산만 광공업생산지수에 포함하여 조사)로서 주요 613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8,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생산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지수 작성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 및 전기·가스제품의 출하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요 613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8,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작성



##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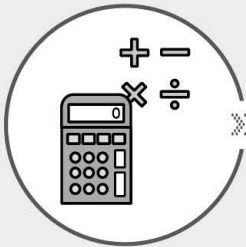
광업 및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수로서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반제품, 재공품과 유통업자의 재고는 제외하고, 광공업생산지수의 대표 품목 613개 중에서 재고의 의미가 없거나 주문생산 품목 등을 제외하고 534개 품목을 조사하여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작성





**소상공인 경기지수**

‘소상공인’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로 정의하며, 소상공인의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고 경기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수산출방법**

$$BSI = [(매우악화 응답빈도 \times 0) + (다소악화 응답빈도 \times 50) + (동일응답 빈도 \times 100) + (다소호전 응답빈도 \times 150) + (매우호전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지역별 응답빈도 수})$$



**건설수주 현황**

건설 수주 현황은 건설업조사 결과 중 일반(종합)건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에 한정(단, 해외 건설공사는 제외), 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을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HBSI**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 100을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고,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세종 경제



- 연구진** 김성표(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이정윤(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 발행일** 2018년 2월
- 발행인**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
-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 연락처** Tel. (042)530-3572 / Fax. (042)530-3599
- 인쇄처** 신진기획인쇄사 Tel. (042)638-7887

월간 세종경제의 파일은 대전세종연구원(<http://www.dsi.re.kr>)  
및 세종특별자치시(<http://www.sejong.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